

여수시, 직장 내 '갑질·괴롭힘·성비위 제로' 도전

감사담당관실, 신고 상담 통합 운영...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 신고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계화...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여수시가 직장 내 갑질·괴롭힘·성비위 행위 제로화를 선언하는 등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시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성비위를 없애기 위해 감사담당관, 총무과, 여성가족과 등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하고 조직 내 합법리 행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 분리돼 있던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일원화해 감사담당관실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신고 및 상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신고부터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계화했다.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대책도 강화했다. 우선 예방 교육을 기존 한 방향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양방향 교감형 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입장비꿔 생각해봐!'라는 역할극을 기획하고 공연 후 직원들의 소감을 진솔하게 토론했고 강의를 이어 나가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성비위 실태 설문조

사를 정례화해 촘촘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사 내 4컷 만화 전시 ▲간부공무원 캠페인 전개 ▲주 1회 예방 문자 발송 등 '직장 내 3-ZERO 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여수시 혁신 MZ위원회 운영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2차 가해 여부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 등대 상담 연계 등을 통한 일상회복 지원에도 힘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직장 내 갑질·괴롭힘·성비위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분할 것"이라며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원들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올해 '직장 내 갑질·괴롭힘·성비위 행위 제로화'에 나섰다. 6급 직원을 대상으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모습. <여수시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세대발사체 사업자 선정

순천 울촌 1산단에 제작 센터 조성 2조132억 규모 우주계획 사업 민간기업 설계~발사 전 과정 참여

순천 울촌 1산단에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 센터'를 짓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에 선정을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2조132억원 규모의 국가 우주계획 핵심 사업이다. 민간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설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본격적인 '민간 주도 우주 경제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다. 순천시는 지난 2월15일 민간 우주산업의 선두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울촌 1산단 사업 터에서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에 이어 한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산업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순천시는 남해안



노란구(오른쪽) 순천시장이 지난 14일 울촌 1산단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제작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우주산업 집적단지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 순천에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위한 엔진, 탱크 등 발사체 핵심 부품시설 설치 등 주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집적화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오는 4월 순천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2회 우주·방산포럼'을 열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노란구 순천시장은 "오는 4월1일 개장할 순천만 국가정원도 '우주인도'를 늘려오는 순천을 내걸었다"며 "순천이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 우주산업 기반 기지로 우주 경제 시대에 본격적인 발사체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범죄 예방·치안 유지 경찰 '협력단체 연합회' 출범

곡성경찰이 최근 지역 단체들과 '협력단체 연합회' 출범식(사진)을 열었다. 협력단체 연합회는 참여·정성지안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경우회장 등 경찰 협력단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할 방안을 논의했다. 정중두 곡성경찰서장은 "묵묵히 경찰협력단체를 이끌어온 노고에 감사로 전한다"며 "한마음 한 뜻을 모아 곡성군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



여수해역에 친환경 항만순찰선 '푸르미여천' 취항

하이브리드 탑재...대기질 개선 해상 안전관리·장애물 제거 등

여수해역에 친환경 항만순찰선 푸르미여천이 취항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낙포 관공선부두에서 친환경 항만순찰선 '푸르미여천'의 무사고 안전운항을 가원하는 안전기원제가 열렸다.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기관과 업체 등이 참석한 안전기원제는 경과보고, 축사, 안전기원제, 순찰선 시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푸르미여천은 총사업비 48억 원이 투입된 49t 친환경 항만순찰선으로, 친환경선박법 및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을 탑재했다. 해상 운항 시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르미여천은 여수·광양항의 해상 안전관리, 항행 장애물 제거, 불법행위 단속, 해양 오염 사고대



친환경 항만순찰선 '푸르미여천'. 지난 19일 안전기원제와 함께 항만순찰 등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여수해수청 제공>

응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정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푸르미여천의 취항을 계기로 더 안전

하고 깨끗한 여수·광양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 초·중·고 22억 투입 교육복지 실현

인재육성장학금·무상급식·교복 구입비 지원 등

보성군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보성군은 올해 ▲교육복지 실현 8개 사업 11억 9000만원 ▲특기 적성 지원 4개 사업 2억9000만원 ▲학력 증진 지원 5개 사업 7억4000만원 등 총 22억2000여만원의 교육경비를 34개 초·중·고등학교와 보성교육지원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재)보성군장학재단도 인재육성장학금·전문계고 특기 지원 등 12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입,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따뜻한고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한다. 교통 불편으로 통학이 어려운 초·중학교 학생에게 택시비를 지원, 통학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통해 학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특성에 맞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주말 학교 밖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 사회 연계 토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특기 적성 계발을 통한 학력 신장을 도모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 리더십을 갖춘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보성영재교육원 운영 지원과 자기 주도적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의 진로 체험 활동도 지원한다.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지역 교육 기반 확충 방안으로 영어체험교실과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영어 친화적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학생·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희망 보성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녹색 도시 조성 '푸른 광양 만들기'

광양시, 범시민운동 선포...일상 속 나무 심기 실천 홍보

광양시가 20일 '푸른 광양 만들기' 선포식을 열고 명품 녹색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옥룡면 백계산 동백정원 일원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58개 기관·단체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선포하고 나무 심기에 동참했다. 이번 선포식은 숲의 공익적 가치와 일상 속 나무 심기 실천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속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광양시는 지난 2월26일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의 하나로 66개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선언문에서는 미래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푸른 숲과 꽃이 어우러진 녹색 공간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공간 가꾸기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푸른 광양 만들기, 지금! 바로! 나무터!'를 외치며 탄소중립 녹색도시 실현을

'지금 바로 나무터 시작한다'는 구호 아래 나무 심기와 나뭇잎 달기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시장 관사 철거를 앞두고 관사 마당에 심어졌던 동백나무를 이곳에 옮겨심었다. 이 동백나무는 46년생으로 추정되며, 1983년 관사 건축 당시 심어졌다. 나무 심기에 동참한 시민들은 동백정원에 300그루의 동백나무를 심고 비료를 줬다.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도 소규모 마을 감동정원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가정의 달 5월 도심권 공원 안에 '시민 감동정원 만들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민 참여가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장비 임차비 등을 광양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로 전한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우리의 노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단절된 도시 숲을 연결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녹색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인기 연극 '뷰티풀라이프' 광양 온다

서울 대학로서 인기...백운아트홀, 29~30일 4회 공연

광양시 백운아트홀에서 대학로 화제작 '뷰티풀라이프'가 오는 29일과 30일 무대에 오른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공연은 양일 동안 총 4회에 걸쳐 이뤄지며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한다. 휴먼코미디 장르인 연극 '뷰티풀라이프'는 사단법인 한류문화산업포럼 주최 '2019년 대한민국한류대상'에서 연극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대학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제작이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 간 생기는 오해와 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을 재밌게 풀어내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관람신청은 포스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홍보채널-문화행사(광양)에서 오는 24일까지 신청하

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당첨자 발표는 26일 개별 문자를 통해 통보된다.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은 제철소 직원들과 지역민을 위해 실제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봉영화 상영'을 시작했다. 오는 22~24일, 주말 동안 영화 '파묘'를 상영한다. 백운아트홀은 1992년 개관 이래 지역사회에 음악회, 연극, 마술쇼,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해왔다. 지난 1월 공연장 개선 사업을 완공해 노후화된 조명과 음향 시스템을 최신 기기로 교체하고 LED 무빙 라이트 설치와 영화관용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 설치, 세계 영화관 표준에 맞춘 4K 초고해상도 프로젝터를 도입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